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1 「서평문화」 2001년 가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목 차

머리말

| | | |
|-----|---------------------|---|
| 유석춘 | 우리 사회의 속도와 합리성에 대하여 | 5 |
|-----|---------------------|---|

문 학

| | | |
|-----|---|----|
| 오생근 | 명상적 서정시의 품위와 깊이 『풍경 뒤의 풍경』 최하림 | 15 |
| 유성호 | 산에서 바라보는, 사라져가는 역사 『지리산』 이성부 | 25 |
| 김태환 | 비평의 수사학 『판도라 상자 속의 문학』 김미현 | 31 |
| 이정록 | 두껍게 출렁이는 삶의, 경쾌한 물 비늘 『우렁이 속 같은 세상』 김학철 | 37 |
| 김용표 | 영혼의 소리를 추적하는 차가운 여행 『영혼의 산』(1, 2) 가오상젠/이상해 | 43 |

역 사

| | | |
|-----|---|----|
| 박환무 | 20세기 한반도 역사학에서 통일 읽기 『하나의 역사, 두 개의 역사학』 정두희 | 50 |
| 정태헌 | 한말-일제 초기 지세제도의 변화과정에 내재된 역사성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이영호 | 56 |
| 주명철 | 아날학파의 구조화된 역사세계 『아날학파의 역사세계』 김응중 | 63 |
| 김정숙 | 프랑스인의 마음에 담긴 한국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프레데릭 블레스텍스/이항·김정연 | 69 |

철 학

| | | |
|-----|---|----|
| 손동현 | “한국철학”의 숙성을 위한 버거운 시도 『우리말 철학사전 1』 우리사상연구소 편 | 75 |
| 김석수 | 현대 유럽 철학에서 칸트가 차지하는 위치 『칸트와 현대 유럽 철학』 한국칸트학회 편 | 81 |
| 박순영 | 이성의 시련과 이성의 다름 『이성의 시련』 박이문 | 87 |

| | | |
|-----|---|----|
| 진교훈 | 생명에는 과연 원리가 있는가? 『생명의 원리』 한스 요나스/한정선 | 94 |
|-----|---|----|

정치

| | | |
|-----|---|-----|
| 김도중 | 누가 지역주의를 두려워하라? 가해자-피해자의 도식과 집단콤플렉스 『호남의 지역지배구조 형성배경』 백운선 | 103 |
| 이종석 | 수령제 연구의 기폭제 역할 『김일성 리더십 연구』 이태섭 | 110 |
| 박효종 | 정치와 기본 '진리' 그리고 다양한 '의견' 『정치와 진리』 김선욱 | 116 |

경제·경영

| | | |
|-----|--|-----|
| 한혁수 | 품질이 주도하는 사회의 품질이야기 『품질이야기』 김종원 | 123 |
| 조동성 | 인간을 위한 학문 경영학, 그 100년의 역사 『경영의 세기』 스투어트 크레이너/박희라 | 129 |
| 박양호 | 고령화 파동이 가져올 대변화 『증가하는 고령인구 다시 그리는 경제지도』 폴 윌리스/유재천 | 134 |

사회

| | | |
|-----|---|-----|
| 조맹기 | 언론사 연구를 위한 기틀 마련한 연구서 『언론과 한국 현대사』 정진석 | 143 |
| 국민호 | 현대 사회학의 위기와 유교 문화적 대안 『유교사회학』 이영찬 | 149 |
| 최 협 | 사회학이론에 갇힌 공동체 논의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강대기 | 157 |

과학

| | | |
|-----|--|-----|
| 정우열 | 허준의 삶과 의학에 대한 새로운 평가 『조선 사람 허준』 신동원 | 163 |
|-----|--|-----|

| | | |
|-----|--|-----|
| 송상용 | 난해하나 가장 표준적인 뉴턴 전기 『프린키피아의 천재』 리처드 웨스트폴/최상돈 | 169 |
| 김명진 | 흥미로운 문제 제기, 빛나간 대안 『네번째 불연속』 브루스 매즐리시/김희봉 | 175 |
| 이필렬 | 생태론 '교과서'에 대한 비판 『래디컬 에콜로지』 캐롤린 머천트/허남혁 | 180 |

예술

| | | |
|-----|---|-----|
| 이원복 | 조선 후기 화단의 새로운 조명 『조선 후기 궁중화원 연구』(상, 하) 강관식 | 189 |
| 송해진 | 한국인에 권한을 넘치는 국악 열정 『우리음악, 그 맛과 소리깔』 신대철 | 195 |
| 서연호 | 연극운동과 연극예술의 상관성 고찰 『한국연극운동사』 유민영 | 200 |

교양

| | | |
|-----|---|-----|
| 권영필 | 중국 문화를 알아야 세계 문화를 안다 『중국 문화유산 기행』(1~3) 허영환 | 206 |
| 윤태수 | 흥미와 공감 그리고 동질성에 대한 개안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은 우리 문화 이야기』 김진섭 | 211 |
| 한영옥 | 움직이는 국어를 성실하게 따라가는 사랑 『이젠 국어사전을 버려라』 장진한 편 | 217 |

아동

| | | |
|-----|--|-----|
| 정두리 | 동심의 원형·동요 부르기 『나팔 불어요』 윤석중 외 작사/홍난파 외 작곡 | 224 |
| 김영주 | 어린이를 위한 고전 음악 안내서 『세상 모든 음악가의 음악 이야기』 유미선 | 229 |

| | | |
|------|--------------|-----|
| 제43차 |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 235 |
|------|--------------|-----|

우리 사회의 속도와 합리성에 대하여

유석춘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위원

삶의 무게와 우리 사회의 속도

누구나 자기 시대가 가장 어렵고 자기 처지가 가장 힘겹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요즘 우리네 삶은 유난히 고달프다. 어디를 봐도 무엇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도대체 여유롭고 편안한 것이 없다. 다들 쪼들리고 바쁘고 불안하고 지쳐 있다. 삶의 무게가 천근만근이다. 이런 푸념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삶이 버거운 것이 바로 요즘이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단함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속도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더 '속도'가 중요한 덕목으로 되어가고 있다. 빠른 것, 더 빠른 것에 환호하고 조금이라도 느리고 뒤쳐진 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우리다. 시대의 화두라 할 수 있는 '정보화'는 가뜩이나 어지러운 이 사회의 속도증후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 '기다

림'이란 낯설고 인기 없는 단어가 된 지 이미 오래다. 빠른 사회를 쫓아가다보니 삶이 바쁘고 몸이 지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속도에 발맞추지 못할까봐 마음은 늘 불안하고 자칫 속도의 대열에서 낙오라도 하면 실제로 이것저것 생활이 쪼들린다. 누군들 이 속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사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는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이런저런 부실 사고를 경험할 때마다 슬하게 비난을 받아온 터다. 하지만 전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속도 지향은 점점 더 가속이 붙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이 문제가 일개인의 반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리임을 말해준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사회의 구조에서 연원하여 이제는 한국인의 삶의 준칙으로 내면화된 것이 바로 이 빨리빨리의 속도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에토스(ethos)가 되어버렸다. 지금 우리네 삶이 유달리 고달픈 것은 바로 이 속도에의 강박증 때문이다.

속도의 합리성과 도덕성의 위기

너나없이 빠름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일종의 집단 광기로까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 시대 이 사회의 합리성의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빨리, 먼저, 앞서서'의 합리성이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느리게, 나중에, 뒤서서'를 비합리성으로 규정하여 배척한다. 우리들 중 누가 느리게 나중에 뒤서서 걸으려 하는가?

속도와 합리성은 그 자체로서 비난받을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단히 거부할 수 있는 천박하거나 만만한 삶의 이데올로기만도 아니다. 오히려 주지하는 바대로 합리성의 원칙은 근대 서구문명을 경유하여 오늘날 전세계를 잉태한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기원이다. 불확실한 구원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초인적인 의지로 철저하게 삶을 금욕화한 개신교도의 원동력이 바로 이 합리성이었다. 깨끗한 부(淸富)를 구원의 징표로 받아들인 그들은 청부를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삶을 합리적으로 조직화하였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합리성은 경제적이기 이전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이었다. 오늘날의 합리성은 적어도 그 기원에서 도덕성과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속도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합리성이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분명 크고 많다. 생존조차 빠듯한 세계 최빈국의 위치에서 그나마 앞선 나라들을 쫓아가려니 속도의 논리가 첩경일 수밖에 없었을 게다. 그리고 그 속도의 힘으로 우리는 이나마 발전된 오늘을 이룰 수 있었다. '빨리, 먼저, 앞서서'의 합리성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의 합리성이 임계치를 넘고 있다는 데 있다. 시속 100킬로미터의 자동차는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만, 시속 200킬로미터의 자동차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무도 모른다. 전자의 자동차는 '이동'을 하지만 후자의 자동차는 '질주'를 한다. 전자에서는 생각과 대화, 이해와 공감에 있지만 후자에서는 주관적 감각만이 있다. 전자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지만 후자는 목적에서 이탈하고 있다. 목적을 왜곡하거나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임계치를 넘은 우리 사회의 합리성은 많은 것을 상실케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와 도덕성의 상실이다. 속도

의 합리성이 목적을 향한 이동이 아니라 목적을 이탈한 질주가 될 때 그것은 도덕성과 의미로부터 분리된다. 원래 의미와 도덕성은 찬찬한 고려와 이해, 동감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그 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속도의 합리성은 이런 느린 감정의 작용들에 대해 비합리성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빨리 앞서서 먼저 가는데 의미와 도덕성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 저기를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인 사람에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도덕적으로 정당한지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美)산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속도 합리성의 위세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속도가 곧 돈이고 경쟁력인 사회에서 '못난 외모보다 나의 진실된 내면을 봐달라'는 주문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의 논리는 차라리 회극에 가깝다.

우리 사회의 과도한 속도 합리성은 점점 더 내용(contents)으로서의 인간보다 감각적 기능으로서의 인간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고단한 삶은 물질적 위기와 함께 의미와 도덕성의 위기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현대의 합리성을 만들어낸 서구 근대논리 자체의 위기가 있겠고, 그 위에 한국 사회가 특수하게 가공해 낸 속도 지상주의의 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형상이다. 서구 근대의 합리성은 그 기원의 시점에서 볼 때, 종교적, 도덕적 지향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베버의 지적처럼 근대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한 합리성은 곧 종교 및 도덕적 제어에서 풀려 나와 자체의 논리로써 굴러가게 되었다. 이것이 현대 합리성의 위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구 합리성의 위기는 도덕적 고삐가 우연히 풀려 발생한

일탈적인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애초에 고삐 자체가 너무나 느슨하고 허약한 데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다면 서구로부터 받아들인 우리 사회의 (속도) 합리성은 이미 그 수입에서부터 위기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사회의 속도 지상주의의 위기는 근대화와 발전의 급박한 요청 앞에서 합리성을 극단적으로 도구화한 데서 비롯된다. 거기에는 아무런 규범적 제어장치가 없었다. 생략과 단축 그리고 광기와 비성찰의 질주가 바로 이 위기의 원인인 것이다. 서로 결합하여 강화된 속도 합리성의 위기 속에서 지금 의미와 도덕성의 자리는 가련하고 초라해 보인다.

새로운 합리성의 가능성

속도에 주눅들고 경쟁에 지친 우리들은 곧잘 힘든 일상으로부터 탈출하려 한다. 그저 자연으로 도피하고 푹하면 과거로의 향수에 빠진다. 주말이면 고속도로를 메우는 자동차 행렬이며 영화 '친구'의 인기 그리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복고의 열풍은 오늘 고된 삶의 이면에 다름 아니다. 어찌하겠는가? 이나마의 탈출조차 없다면 우리는 그 무서운 속도 경주에서 이미 탈락하고 말았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탈출은 거의 매번 미봉에 그치고 끊임없이 일상으로 되잡혀 온다. 오히려 탈출을 통해 충전된 에너지로 속도의 경주에 더욱 몰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속도에 지친 우리가 다름 아닌 가속의 운전수라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도대체 다른 논리의 합리성은 불가능한 것인가?

우선 합리성이라는 용어로부터 어렵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자. 우리가 쓰는 합리성(합리적)이란 용어는 영어 rationality (rational)의 번역어이다. 여기에는 이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들어 있다. 하지만 그 뉘앙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낼 만큼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영어의 rationality는 인간의 이성에 기반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나 성향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효율성과 수단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우리가 번역해 쓰는 합리성(合理性)이란 용어는 한자어 그대로 '어떤 이치에 부합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 이치(理)가 사물의 법칙인 물리(物理)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인간의 도리(道理)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전통적 사유체계에서는 사물의 객관적 이치와 인간의 도덕적 이치가 일원적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그것은 애초에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바로 이 점에서 rationality가 아닌 합리성에는 효율과 수단이라는 측면에 앞서 의미와 목적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웅변적으로 시사하는 중요한 도덕적 명령을 간과한 채 살아온 셈이다. 그것은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는 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도덕적 메시지이다.

또 다른 가능성의 단초는 우리 고유의 역사적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가장 대표적인 가능성의 터전은 바로 전통사회의 질서의 방식들이다. 흔히 한국의 전통사회는 낙후되고 뒤떨어진 봉건적 체계로 인식되곤 한다. 그 사회와 합리성은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다. 물론 오늘의 견지에서 그런 면이 없지 않다. 다분히 그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사회의 지체로운 합리성이 부당하게 왜곡되고 근거 없이 폄하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다.

관료를 뽑음에 있어 그 동문수학한 동료들의 세세한 인물평을 중요하게 고려한 인선 방식은 어떠한가? 조선사회는 관료의 선출에 앞서 일종의 관료 예비군 목록으로서 '홍문록(弘文錄)'을 작성하였다. 여기에 이름이 오르기 위해서는 성균관 유생 시절 동기들의 좋은 평가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한다. 능력과 함께 도덕성이 없이는 관료로서 입사하기 어려웠던 것이 조선사회였다. 임금이 중요 사안에 삼공육경(三公六卿)을 위시한 상하 관료, 유생들의 의견을 두루 모은 수의제(收議制)는 어떠한가? 조선 임금의 의사 결정에는 단순히 관료의 개인적 의견뿐 아니라 고제(古制)를 연구한 홍문관원의 진언이 필수적이었다 한다. 임금과 고위관리의 독단을 견제하는 대간의 역할은 이미 잘 알려져 있거니와 '불문언근(不問言根)'이라 하여 대간의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했던 것은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매우 시사적이다. 하물며 조정의 의사 결정에 대한 성균관 유생들의 반대 의사를 '권당(捲堂)'이라는 시위 형식으로 합법화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군자의 도리를 중히 여겨 예의와 엄치를 높이고 자기에게 한없이 엄했던 수많은 선비들의 삶은 또 어떠한가? 비록 벼슬이 높은 삼공육경이라도 자기의 과오 유무에 상관없이 젊은 대간의 탄핵을 수치로 여겨 향리로 물러나온 사례를 우리는 술하게 본다. 공감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예의와 도덕을 지향하려 한 전통사회의 합리성이 어찌 마냥 비합리성의 조롱을 받아야만 하겠는가?

우리들의 삶은 한계를 넘은 속도의 합리성으로 질주하고 있다. 그것이 기분 좋은 속도감이 아니라 한없는 피로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 합리성 속에 상실되어 버린 우리의 의미 때문이다. 사회학자 베버는 의미와 합리성의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을 무기력한 두려움

으로 바라본 바 있다. 하지만 도리에 부합하라는 합리성의 어원적 메시지와 거기에 충실하려 했던 과거의 우리 경험은 오늘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두고 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의 합리성이 어떤 식으로 움터 나올지 말이다. 약간의 사치가 허용된다면 지금 바람 산들한 나무그늘 아래서 오래 접어두었던 책 한 권을 읽고 싶다.

유 석 준

-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 사회학박사,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저서 :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
- 논문 : "유교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동아시아 유교자본주의 재해석", "동아시아의 연고주의와 세계화"